

뮤지컬로 만나는 '김대중' 자유·평화 메시지 전한다



12월 13~15일 ACC 극장2에서 뮤지컬 '나의 대통령'을 상연한다. 김 전 대통령 역을 맡은 안덕용(오른쪽)이 옥중 심문을 받는 장면. <손에손에 제공>

올해로 탄생 100주년을 맞은 김대중 전(前) 대통령은 국가 지도자를 넘어 민주주의와 인권의 표상이다. 1971년 제7대 대통령 선거부터 1980년 '서울의 봄'에 이르는 유신시대, 신군부 탄압과 사형선고 및 망명 그리고 광주 5·18의 질곡까지... 그가 거처온 파란곡절의 역사는 격동의 근현대사 그 자체다.

김대중 전 대통령(DJ)의 생애를 뮤지컬로 극화해 자유와 평화 메시지를 전하는 공연이 펼쳐진다. 협동조합 손에손에(대표이사 박석영)가 오는 12월 13~15일 ACC 극장2에서 선보이는 '나의 대통령' 이 바로 그것.

내년 6월 수도권에서 상연하는 본 무대에 앞선 프리뷰 형식이며 15일(오후 6시 30분), 16일(오후 2시, 오후 6시 30분), 17일(오후 2시) 진행할 예정



손현정(이희호 역·왼쪽) 안덕용 배우가 기택연극 중 한 때를 보내는 모습.

협동조합 손에손에 '나의 대통령' 공연, 12월 13~15일 ACC 극장2

탄생 100주년 기념 DJ 생애 극화... 12월 6일까지 크라우드 펀딩 진행

이다. 연출은 권호성이 맡았으며 최병우·오수운 등이 안무 작업을 했다. 김대중 역에 안덕용, 이희호 역에 손현정 배우가 출연.

작품은 노르웨이 오슬로 시청 '노벨평화상 수상자 대기실'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 남자를 비추며 시작한다. 푸른 하늘을 응시하는 그의 시선과 함께 극은 1971년 장충단 공원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다.

공원에 온집한 군중은 신민당 젊은 대선 후보인 DJ의 열변을 들으며 새 시대 희망에 부른다.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세에 당황한 정부와 공화당은 중앙정보부 등을 통해 선거 부정을 일삼는다.

이후 작품은 낙선한 김대중이 실패를 딛고 다음 총선에서도 영향력을 발휘한 모습, 선거를 하루 앞둔 날 반대편에서 달려오던 덤프트럭으로 인해 차가 전복됐던 일화 등을 극화했다.

민심을 잃은 박정희가 유신을 선포하는 등 종신 집권의 야망을 드러냈던 내용도 담겼다. 당시 민중 진영의 인사들이 투옥되고 고초를 겪었던 사건 등도 볼 수 있다.

납치된 김대중이 옥중에 태워진 채 바다에 수장되기 직전 미국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되고 도움을

받는 장면은 1부 하이라이트다. 이후 동교동에 DJ가 가택 연금이 되고, 이로 인해 독재정권은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된다.

2막은 광주5·18민주화운동을 총괄로 진압하고 정권을 탈취한 신군부의 탄압과 김대중에 대한 사형선고, 망명생활 등을 조목화한다. 텅 빈 동교동에서 홀로 남은 이희호 여사는 마당에 핀 꽃을 바라보며 남편의 안위를 기도한다.

김 전 대통령이 사형을 구형받은 직후 "마지막으로 이곳에 앉아 계신 공동 피고들께 유언을 남기고 싶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다시는 이런 정치 반복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법정 진술했던 모습, 결기는 아직까지 회자가 되고 있다.

조휘, 김상권 및 서도민, 표근를, 안홍주 등 40여 명이 무대에 오른다. 손에손에 라이브 연주팀과 합창단도 관객들을 만난다.

한편 제작진은 뮤지컬과 관련해 크라우드 펀딩도 오는 12월 6일까지 진행 중이다. 창작진 및 출연진과 함께하는 1박 2일 김대중 대통령 생가 투어를 비롯해 이니셜 노트, 기념 뱃지 등을 리워드도 제공한다.

손에손에 박석영 대표는 "뮤지컬 '나의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남긴 메시지를 매개로 전기



김대중 전 대통령. <손에손에 제공>

적 서술에 그치지 않고 입체적으로 형상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면서 "그의 인간적 고뇌와 민중에 대한 사랑을 진솔하게 담아내기 위해 역량을 집중했다"고 했다.

이어 "민주주의의 상징인 '광주'에서 작품을 선보이게 돼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김대중 전 대통령이 보여주셨던 용기와 화합의 정신이 관객들께 온전히 전해졌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인터파크 예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나주 레지던시 참여 작가들의 다채로운 작품들

국제예술인 창작활동 지원사업

12월 31일까지 성과보고회

목사골 나주에서 받은 예술적 영감을 표현한 외국 작가들 작품 전시가 열리고 있어 눈길을 끈다.

나주시는 13일 나주문화예술소통창작소에서 '국제예술인 창작활동 지원사업(레지던시) 성과보고회'를 열고 오는 12월 31일까지 전시('원도심-이방인 다시 시작되는 빛')를 나주문화예술소통창작소에서 진행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나주시가 글로벌 예술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마련했다. 국내외 예술가들이 나주 역사와 문화를 토대로 각기 창작활동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기획했다.

레지던시 전시에 참여한 해외 작가는 프랑스 루벤 다리오를 비롯해 마르티네즈 콘트레라스와 이삭 카라베오 에레라, 폴란드의 필립 로드키비츠, 독일의 아드리안 디터틀이다. 이들 작가들은 각기 회화, 설치 작품을 매개로 나주에서 받은 예술적 상상



나주 '국제예술인 창작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한 작가들. <나주 문화예술특화기획단 제공>

력을 풀어냈다.

국내 작가는 그라피티 아티스트 이종배, 회화 작가 박항미가 참여해 개성적인 매력을 더했다. 이에 앞서 13일 전시 오프닝에서는 이종배 작가의 드로잉 퍼포먼스가 펼쳐져 관객들을 사로잡았다.

장현우 문화예술특화기획단장은 "이번 성과보고

회는 국적이 다른 예술가들이 나주에서 체험한 감성과 이야기를 개성적인 작품으로 풀어내고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이를 토대로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고유한 나주의 문화를 각국에 알리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에이드브레이크즈'. <에이드브레이크즈 제공>

광주에서 펼쳐지는 화려한 비보잉

에이드브레이크즈 '비트 스트리트 062', 12월 14일 전일빌딩245

본격적인 비보잉에 앞서 선보이는 화려한 동작인 '탑락'부터 앞서서 발 움직임을 보여주는 '풋워크', 물구나무를 선 채로 동작을 멈추는 '프리즈'나 격렬한 '파워부브' 등 스트리트 댄스에는 흥미로운 기술이 많다.

에이드브레이크즈(대표 이선호)가 선보이는 '비트 스트리트 062'는 이 같은 다양한 비보잉 스킬들을 만나는 자리다.

오는 12월 14일 오후 7시 30분 전일빌딩 245(9층)에서 펼쳐지며 DJ 이조흠, ONEMANIA 등이 게스트로 함께한다.

이조흠의 '라이브 디제이 쇼'로 시작하는 공연은 비보이, 디제이, 랩퍼의 합동 무대인 'BEAT STREET 062'로 이어진다. 광주 지역번호 062에서 착안, 로컬 댄서들의 움직임으로 채워진다. 광주·전남에서 활동해 온 MC QUASAR(본

명 전준성)는 'MC QUASAR SHOW'를 준비했다. 이어 비보이 정종호, 이선호, 김익근, 신수혁 등과 함께하는 콜라보 아파치 무대 '웨이X 비보이'를 볼 수 있다.

이외 비보이 공연 '인트로 THE X', 'FREEDOM', 하우스댄스를 만나는 '원메니아', '락스 테이다' 등이 무대에 오른다. 전 출연진이 프리스타일 레퍼토리로 장식하는 피날레도 있다.

이현민, 이한국, 이선호, 최지철을 비롯해 송연환, 박정빈 등이 출연할 예정이다.

에이드브레이크즈 대표 이선호는 "지역에서 오랜 기간 활동해 온 비보이와 비걸, 디제이 및 래퍼, 스트리트 댄서들이 의기투합해 준비한 공연이다"며 "다이나믹한 춤선에 담긴 에너지와 유쾌함이 지역을 열기로 몰들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청년작가 지원 '하정웅미술상' 신설한다

광주시립미술관·광주미술관회

하정웅선생의 메세나 정신을 기리고 청년작가 지원 일환으로 '하정웅미술상'이 신설된다.

광주시립미술관(관장 김준기)과 (사)광주미술관회(이사장 김영희·미술관회)는 지난 19일 광주시립미술관 회의실에서 '하정웅미술상' 신설, 하정웅청년작가초대전 공동 주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 협약식을 맺었다.

이번 협약식은 광주시립미술관 김준기 관장, 미술관회 김영희 이사장을 비롯해 관계자 약10인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에 따라 시립미술관은 하정웅청년작가초대전 전시기획부터 실행까지 전시 전반에 관한 업무를 담당, 진행한다.

미술관회는 하정웅미술상을 신설해 참여작가 4인에게 1인당 상금 500만원 씩 총20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하기로 약속했다.



하정웅 명예관장

김준기 관장은 "공립미술관이 공식적으로 주지 못하는 상을 미술관회에서 대신 해주셔서 감사하며 전시의 위상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술관회 김영희 이사장은 "이번 '하정웅미술상' 신설과 하정웅청년작가초대전 공동 주최로 청년작가 지원 및 미술문화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KSA 한국표준협회
KOREAN STANDARDS ASSOCIATION

ISO 21388
보청기적합관리 인증센터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국제보청기

since 1982

-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